

배포일시	2020. 11. 23. (월) 11:30 (총 19매)	보도시점	2020. 11. 23.(월) 12:00
담당부서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장 송근용 주무관 배효정
		전화번호	031-8025-5046

올 겨울, 따뜻했던 지난 겨울보다 춥고 기온 변동성 커질 전망

[기온]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음

[강수량] 12월과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3개월 전망(2020년 12월 ~ 2021년 2월) >

□ **(기온 전망)** 12월은 평년¹⁾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1~2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겨울철 동안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12월)** 전반에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나, 후반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 12월 수도권 평년 기온) 최저기온 -3.9℃, 평균기온 범위 -0.5~0.7℃, 최고기온 4.5℃

○ **(1월)**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1월 수도권 평년 기온) 최저기온 -6.8℃, 범위 -3.6~-2.0℃, 최고기온 1.6℃

○ **(2월)** 찬 공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기온이 차차 오르겠으나,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밤과 낮의 기온 차가 차차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2월 수도권 평년 기온) 최저기온 -4.4℃, 범위 -0.9~0.7℃, 최고기온 4.6℃

1) 평년은 과거 30년(1981~2010년)의 평균 기후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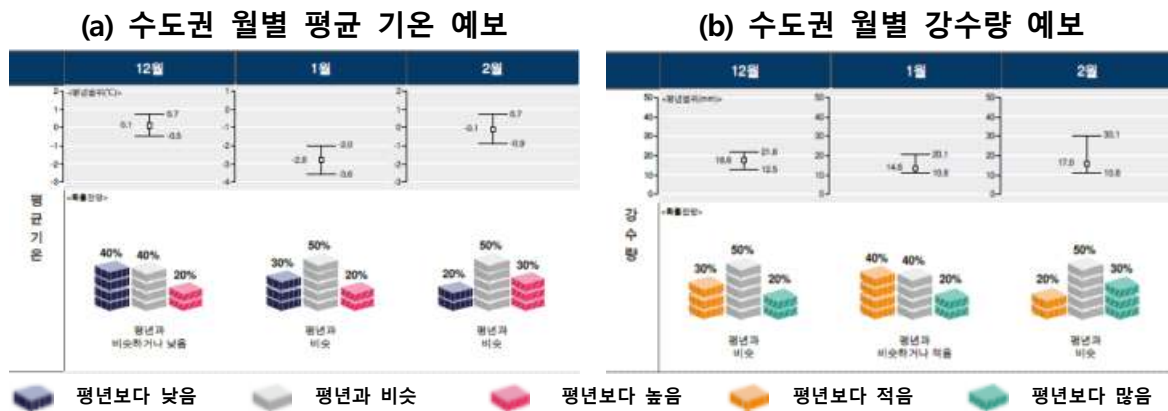
□ (강수량 전망)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2월과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 12~1월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강수량 수도권 평년 범위: 12월 12.5~21.6mm, 1월 10.8~20.1mm, 2월 10.8~30.1mm

※ 최근 6개월(20.5.20~11.19.) 수도권 누적강수량(1,269.4mm)은 평년의 117.6%로 기상가뭄은 없으며, 2월까지 기상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3개월 전망 요약〉



※ 기상청에서는 지난 여름철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특이한 기압계가 발생할 수 있어 북극의 상태, 블로킹 출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기압계가 크게 변화할 경우 수정 전망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수도권 겨울철 전망

목 차

- I. 2020년 수도권 가을철 기상특성
- II. 엘니뇨·라니냐 전망
- III. 기후감시 요소 분석과 겨울철 전망
- IV. 최근 10년 겨울철 날씨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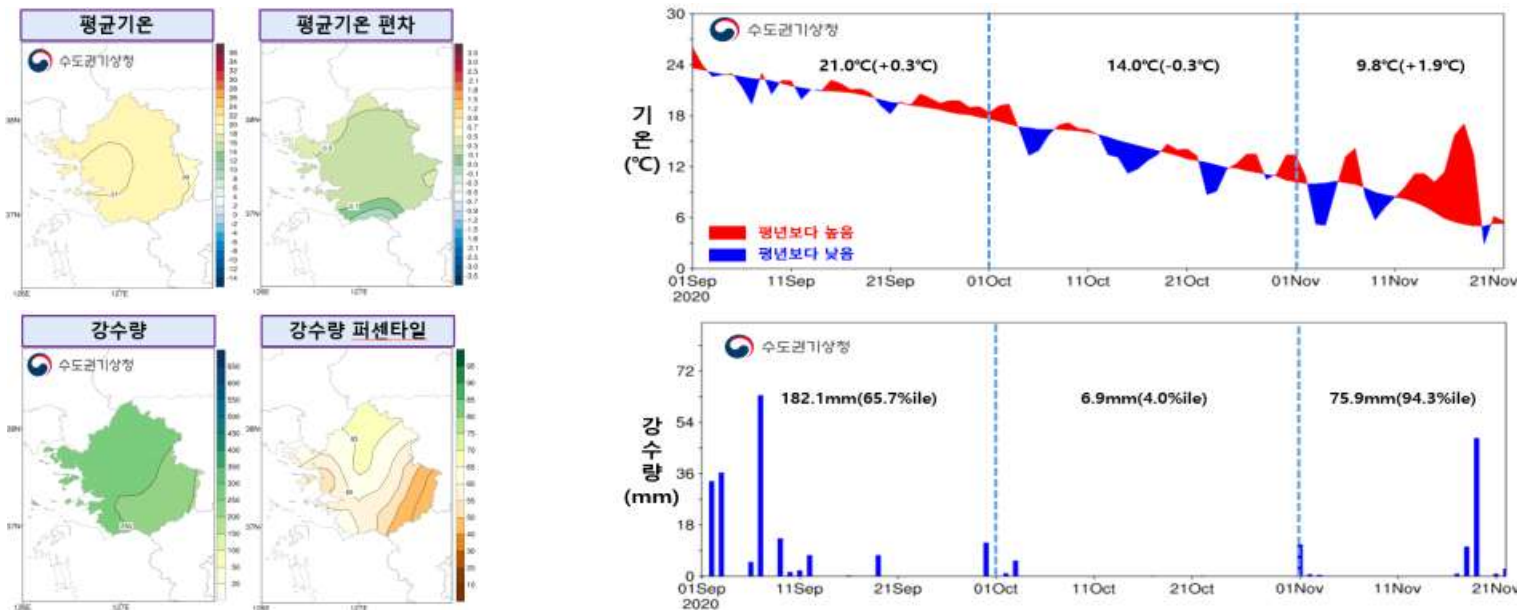


수도권기상청

I. 2020년 수도권 가을철 기상특성

1. 기온과 강수량(2020.9.1~11.22.)

- 수도권 평균기온은 15.4°C로 평년(14.9°C)과 비슷했음
 - 9월~11월 월 평균기온은 각 21.0°C, 14.0°C, 9.8°C로 평년(9월 20.7°C, 10월 14.3°C, 11월 1~22일 7.9°C) 대비 9월~10월은 비슷했고, 11월(11.1~22.)은 높았음.
- 수도권 강수량은 264.8mm로 평년(150.5~277.4mm)과 비슷했음
 - 9월~11월 월 강수량은 각 182.1mm, 6.9mm, 75.9mm로 평년(9월 63.8~185.2mm, 10월 27.8~55.4mm, 11월 1~22일 24.9~48.0mm) 대비 9월은 비슷했고, 10월은 적었고, 11월(11.1~22.)은 많았음.



[그림 1] 가을철 수도권 (위) 평균기온과 편차(°C)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아래) 강수량(mm)과 강수량 퍼센타일²⁾ 분포도 및 일변화 시계열

2) 퍼센타일: 평년 동일 기간의 강수량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값을 0, 가장 큰 값을 100으로 하는 수(평년비슷범위: 33.33~66.67퍼센타일)

2. 가을철 기상특성(2020.9.1.~11.22.)

○ [기온] 주기적인 기온 변화 속에 평년 수준의 날씨

- 9월: 유럽과 랩테프해~동시베리아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었고, 태풍과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기온 변화를 보이며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했음.
- 10월: 상층 기압계의 동서 흐름이 원활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북서쪽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과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했음.
- 11월(11.1~22.):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두 차례 큰 폭으로 기온이 하강하여 기온 변동 폭이 컸으나, 12일 이후 기온이 상승하여 17~18일 동안 매일 일 평균기온 극값을 갱신함
※ 일 평균기온은 17일(15.7°C, +10.2°C), 18일(17.1°C, +11.9°C) 최고 1위를 기록함

○ [강수량] 태풍과 11월 중순 많은 비, 이외 뚜렷한 강수 없어, 건조한 날씨에도 평년 수준의 강수량

- 9월: 9월 초 2개 태풍(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었음.
-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기압골에 의한 많은 강수도 없어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10월 강수량은 6.9mm, 강수일수는 6.5일
- 11월(11.1~22.): 17~19일 남쪽 기압골에 동반된 많은 비로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 19일 일강수량은 48.5mm로 1973년 이후 최대 1위를 기록함

○ 첫 서리 및 첫 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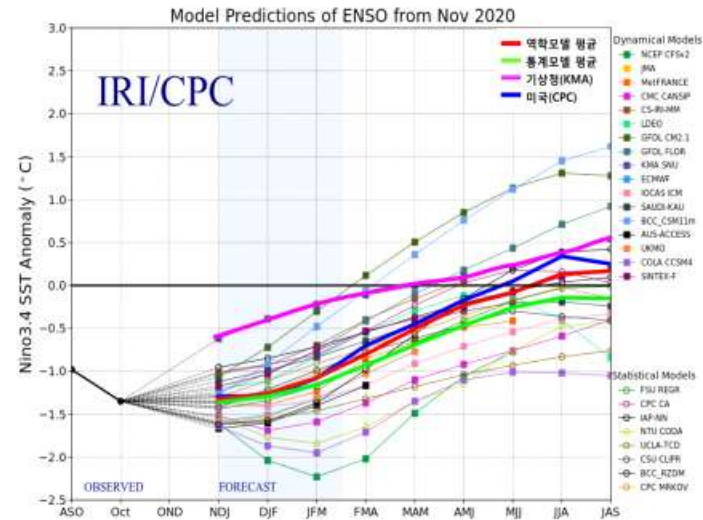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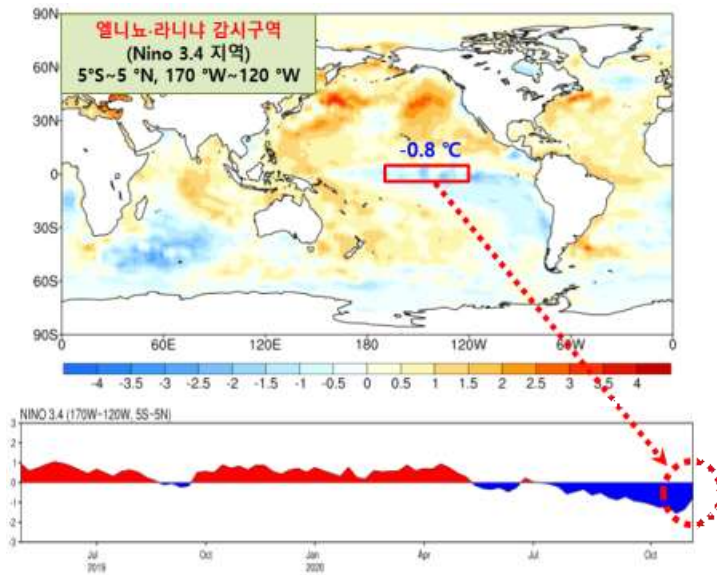
- (첫 서리) 10월 24일 서울과 수원에서 관측되었으며, 서울은 작년보다 3일, 평년보다 2일 빨랐고, 수원은 작년보다 3일 빨랐으나 평년보다 1일 늦었음. 11월 10일 인천에서 관측되었으며, 작년보다 10일 빨랐으나 평년보다 3일 늦었음.
- (첫 얼음) 서울에서 10월 24일 관측되었으며 작년보다 15일, 평년보다 6일 빨랐음. 수원에서 10월 29일 관측되었으며, 작년보다 10일 늦었으나 평년보다 1일 빨랐음. 인천에서 11월 4일 관측되었으며 작년보다 10일, 평년보다 3일 빨랐음.

II. 엘니뇨·라니냐 전망

○ 최근(2020.11.8.~11.14.)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8°C 낮은 라니냐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2020년 8월 -0.6°C, 9월 -0.7°C, 10월 -1.2°C(ERSSTv5)

○ 전세계 각국의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의하면, 올 겨울철 동안 라니냐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왼쪽)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최근(11.8.~11.14.) 해수면온도 편차(OISSTv2), (오른쪽) 세계 각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 결과(출처: I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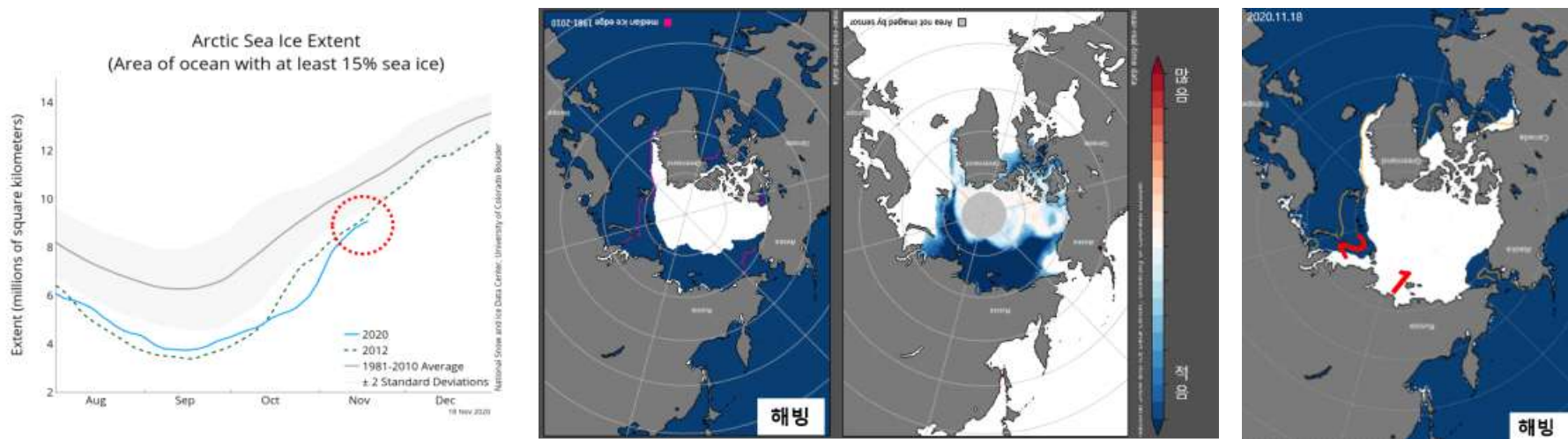
※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C 이상(-0.5°C 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2016.12.23.부터 적용)

Ⅲ. 기후감시 요소 분석과 겨울철 전망

1. 기후감시 요소 분석

- (라니냐) 겨울철 동안 라니냐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과거 자료 분석에 의하면 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나, 11~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 (북극해빙) 북극해빙 면적은 10월에 위성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들어 해빙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랍테프해(1)는 해빙으로 모두 채워졌으나 바렌츠·카라해(2)는 여전히 평년보다 적은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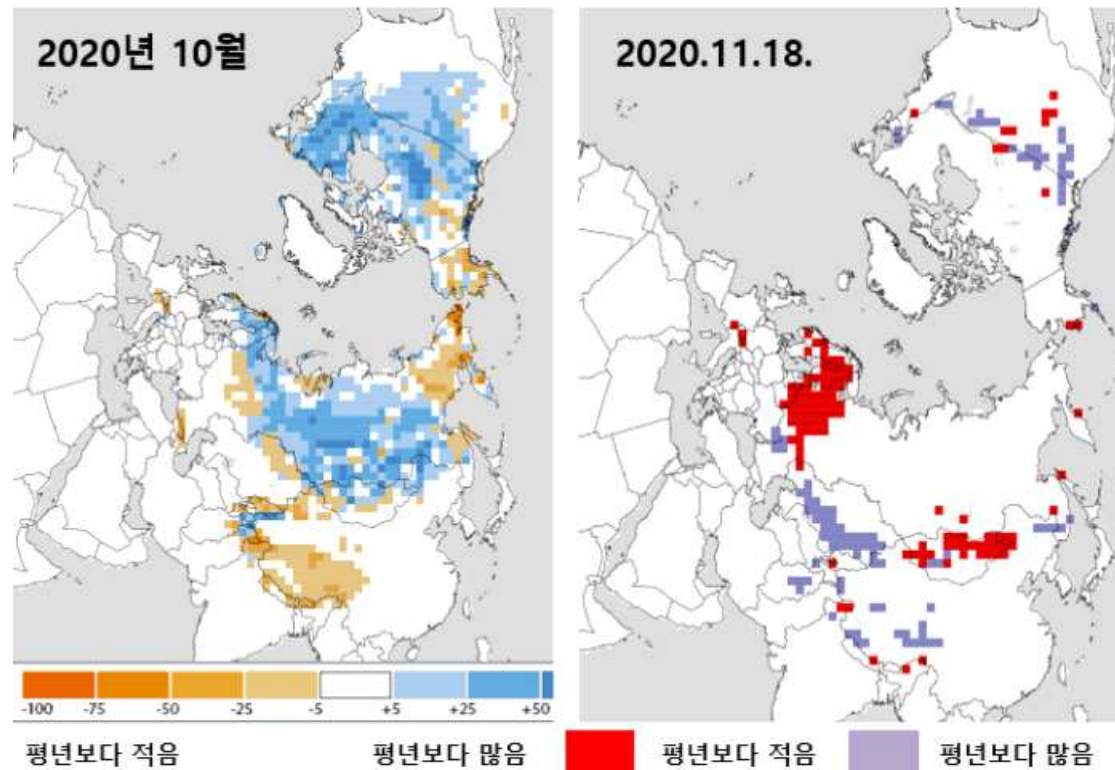
⇒ 우랄산맥 부근이나 동시베리아 지역 기압능 강화로 동아시아에 찬 공기 유입 가능성이 높음



[그림 3] (왼쪽) 북극 해빙면적 시계열, (가운데) 10월 해빙 분포 및 편차, (오른쪽) 최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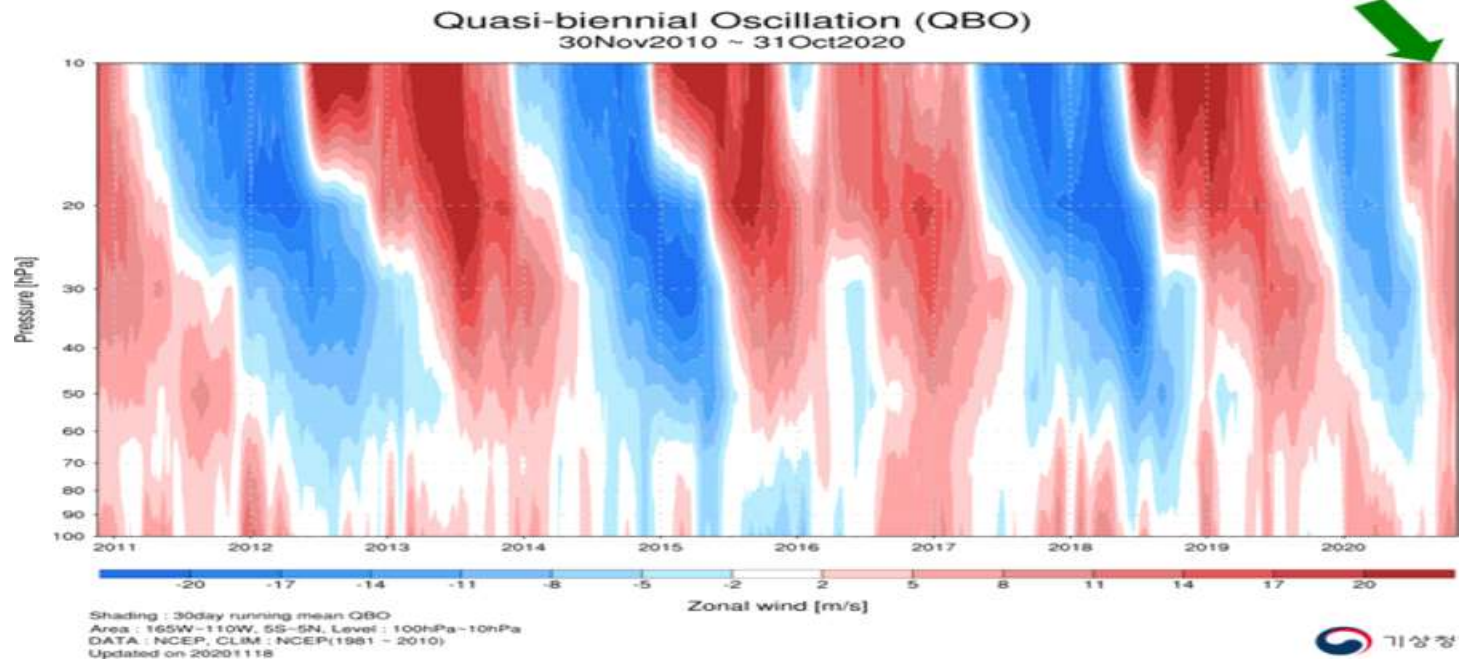
○ (눈덮임) 초겨울 대륙고기압의 발달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유라시아 지역의 눈덮임은 10월에는 평년보다 다소 많은 상태를 보였으나, 11월 들어 눈덮임이 줄어든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초겨울 대륙고기압의 발달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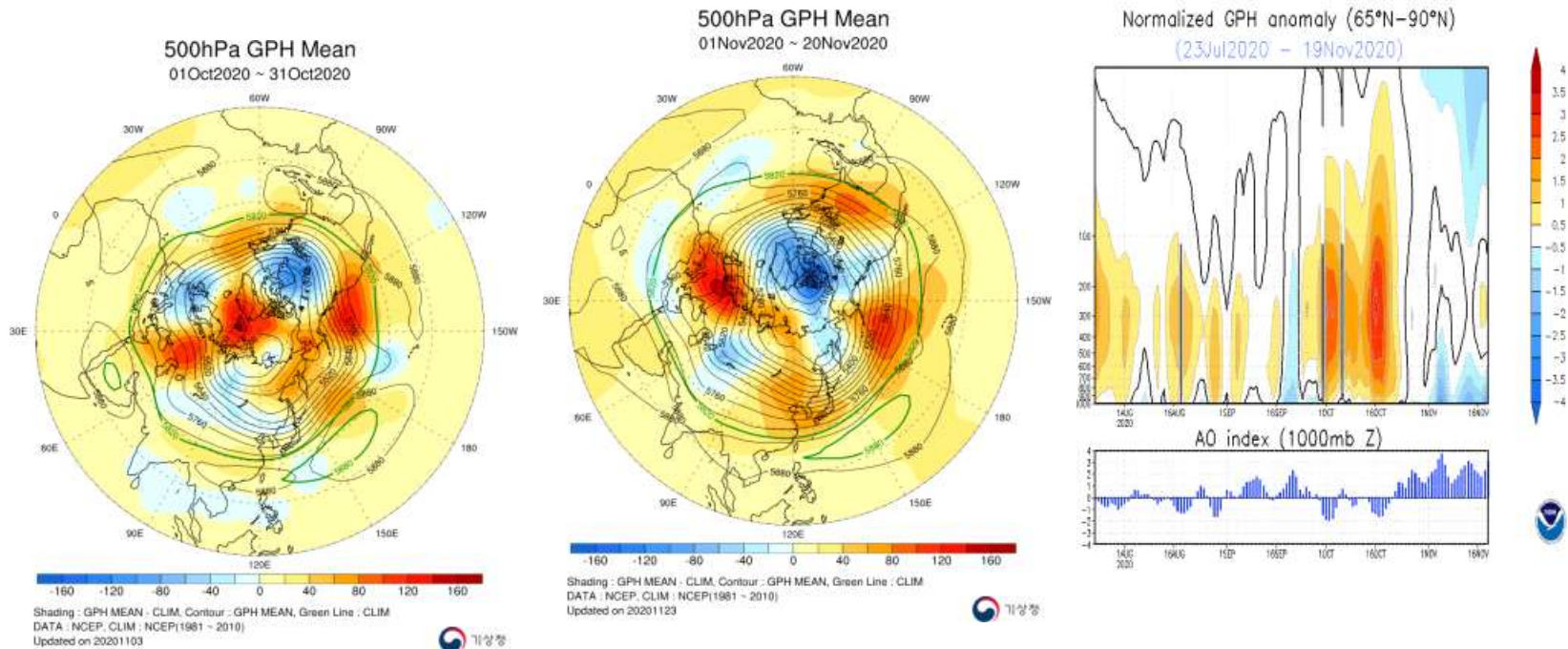
[그림 4] (왼쪽) 10월 눈덮임 편차 및 (오른쪽) 최근 눈덮임 편차(출처: Rutgers 대학)

- (성층권) 적도 성층권(약 10km 상공)에서의 바람 편차인 성층권 진동(QBO)은 9월 이후 동풍편차(EQBO)에서 서풍 편차(WQBO)로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점차 성층권 상층에서 하층으로 서풍이 증가하면서 전파하고 있음
- ⇒ 겨울철 성층권 서풍 편차(WQBO)는 1) 양의 북극진동을 유도하여 한반도 기온 상승 2) 라니냐 효과 약화를 통한 기온 하강폭 감소로 겨울철 중·후반부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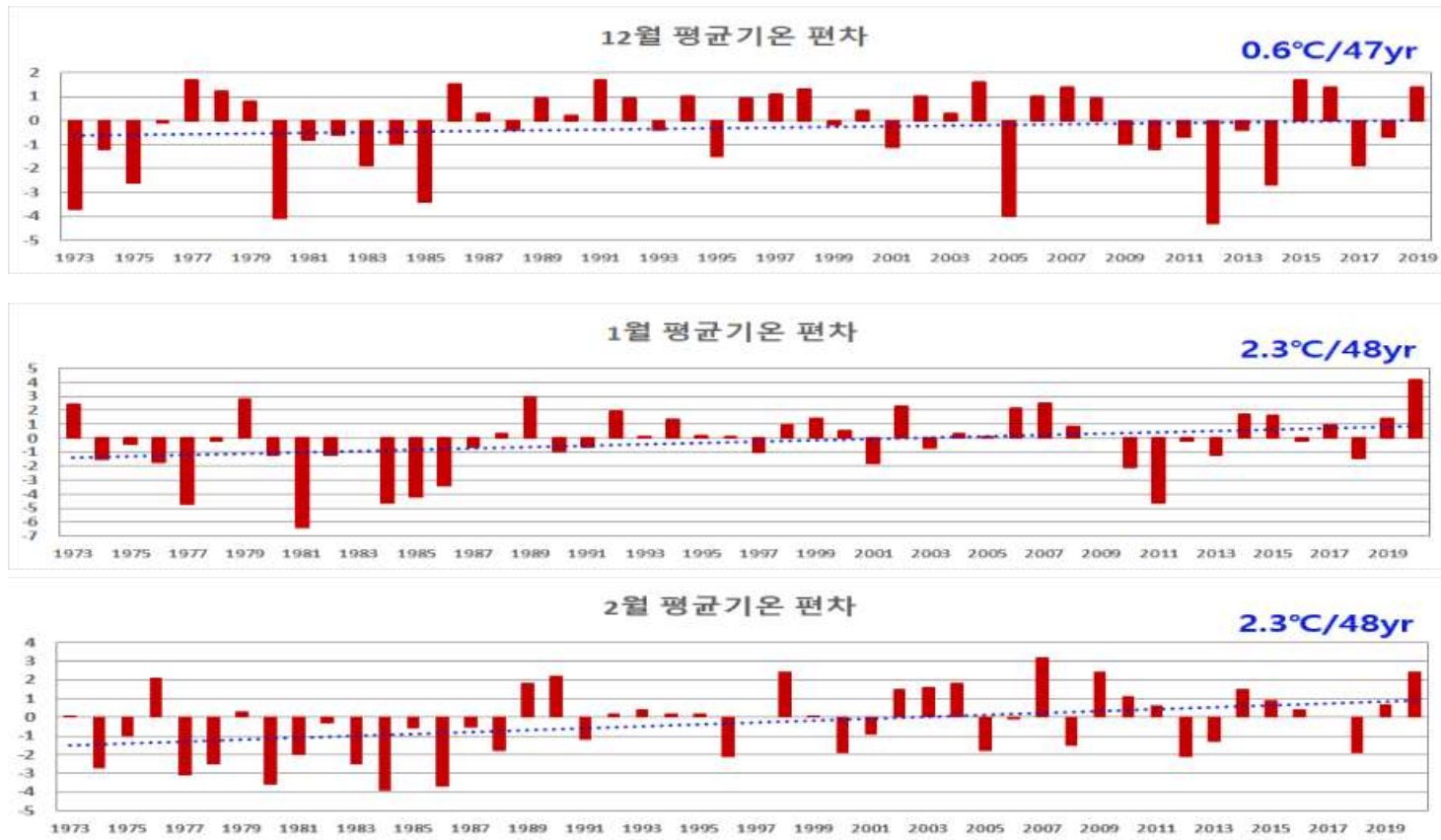
[그림 5] 적도 성층권(10~100hPa, 약 10km 상공) 바람 편차
※ 빨강/파랑 채색: 평년보다 서풍이 강한/동풍이 강한 바람

- (최근 기압계) 10월에는 음의 북극진동과 함께 우랄산맥 부근으로 기압능이 발달하였고, 10월 하순 이후 최근까지 양의 북극진동과 함께 우랄산맥 부근으로는 기압골,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기압능 발달
- ⇒ 양의 북극진동이 12월 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음의 북극진동으로 변화 시 우리나라 부근으로 한기 남하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그림 6] (왼쪽, 중간) 500hPa(약 5.5km 상공) 고도 편차와 (오른쪽) 북극진동 상태
※ 빨강/파랑 채색: 평년보다 높/낮은 고도

- (온난화 경향) 1월과 2월의 기온 증가 경향이 뚜렷한 반면,
12월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으며, 최근 기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분석기간: 12월 1973년~2019년 / 1·2월 1973년~2020년



[그림 7] 월 평균기온 경향성(Trend) 분석

2. 기압계 전망

- 올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감시 요소들 간에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있어 예측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작년에 비해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겠음
 - 겨울철 기온 하강에 기여하는 요소 : 라니냐, 북극해빙
 - 겨울철 기온 상승에 기여하는 요소 : 온난화 경향, 성층권 상태, 양의 북극진동
 - 평년과 비슷한 요소 : 최근 눈덮임
 -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간의 특이 기압계 출현, 예측 불가능한 블로킹의 발생
 - 특히, 찬 공기의 영향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음.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형성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 장기전망은 평년과 비교하여 개략적인 경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압계 급변 시 수정 전망이 발표될 수 있으며, 매월 23일경 발표되는 3개월전망,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1개월전망과 단, 중기예보 등 최신 전망을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겨울철 전망

[기 온]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1~2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겨울철 동안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강수량]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2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강원영동,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표1] 3개월 전망(2020년 12월~2021년 2월) 요약



○ 날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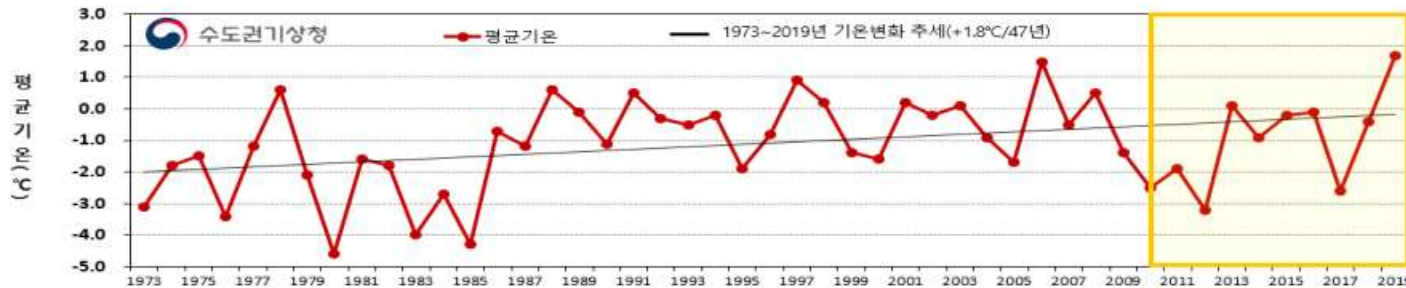
- 12월 : 전반에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후반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습니다.
(월평균 기온) 평년(1.0~2.0℃)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6.6~28.5mm)과 비슷하겠습니다.
- 1월 :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 기온) 평년(-1.6~-0.4℃)과 비슷하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9.0~28.6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2월 : 찬 공기의 세력이 차차 약화하면서 기온이 오르겠으나,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밤과 낮의 기온 차가 차차 커지겠습니다.
(월평균 기온) 평년(0.4~1.8℃)과 비슷하겠습니다.
(월강수량) 평년(19.2~41.4mm)과 비슷하겠습니다.

V. 최근 10년(2010~2019년) 겨울철 날씨특성

1.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 특성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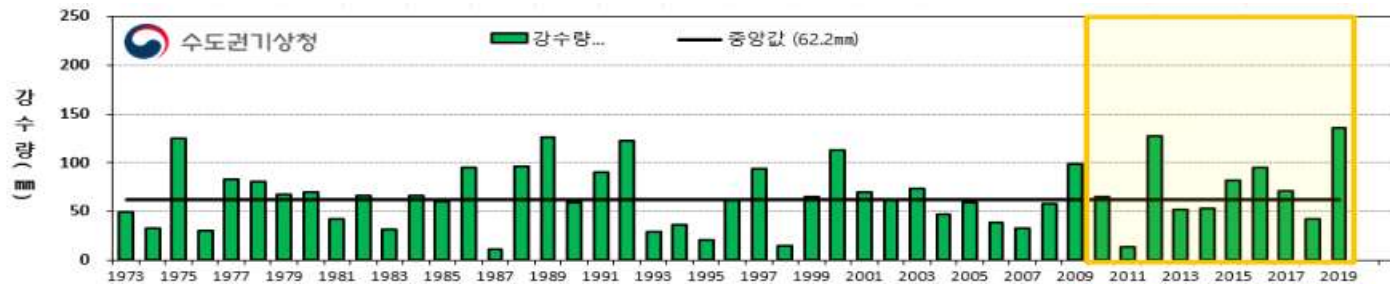
- 최근 10년(2010년~2019년) 평균 기온은 -1.0°C 로 평년(-0.9°C)보다 -0.1°C 낮았음.



[그림 8] 연도별(1973년~2019년) 수도권 평균 기온(12월~2월)

○ 강수량

- 최근 10년(2010년~2019년) 강수량은 73.7mm로 평년(54.1~67.1mm)보다 많았음.



[그림 9] 연도별(1973년~2019년) 수도권 강수량(12월~2월)

[표 1] 최근 10년 수도권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12월	1월	2월
평균 기온(평년편차)	℃	-0.7(0.1)	-2.3(-0.4)	0.1(0)
평균 최고 / 최저기온	℃	3.6 / -4.7	2.0 / -6.4	4.8 / -4.3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29.1 / 8.7	14.3 / 5.3	30.3 / 5.5
일조시간	시간	180.6	194.9	192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8.4	9.2	11
눈 현상 일수	일	8.8	6.5	5.4

※ 기온·강수량은 4개(서울, 인천, 수원, 강화) 지점, 일조시간, 눈 현상일수는 3개(서울, 인천, 수원) 지점 평균

※ 최근 10년 기간: 12월(2010~2019년), 1~2월(2011~2020년)

※ 평년기간: 1981~2010년

[표 2] 평균 기온과 강수량 순위(1973년 이후, 상-하위 5위)

순위	평균기온(°C)			평균 최고기온(°C)			평균 최저기온(°C)			강수량(mm)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	1.9 (1977년)	1.4 (2020년)	3.4 (2007년)	6.8 (1998년)	5.7 (2020년)	8.5 (2007년)	-2.0 (2007년)	-2.2 (2020년)	-1.0 (2007년)	63.6 (1992년)	58.4 (2020년)	99.2 (1976년)
2	1.8 (2015년)	0.3 (1989년)	2.7 (1998년)	6.4 (2004년)	5.2 (1979년)	7.7 (1998년)	-2.0 (1991년)	-3.0 (1989년)	-1.3 (1990년)	63.4 (2016년)	57.2 (1990년)	61.7 (2013년)
3	1.8 (1991년)	0.3 (1979년)	2.5 (2009년)	6.4 (2004년)	4.3 (2007년)	6.9 (2009년)	-2.0 (1977년)	-3.7 (1973년)	-1.7 (2009년)	49.9 (1977년)	55.6 (1973년)	59.5 (1990년)
4	1.7 (2007년)	0.0 (2007년)	2.2 (2020년)	6.2 (2015년)	4.1 (1973년)	6.8 (2020년)	-2.1 (2015년)	-3.8 (2002년)	-1.8 (2020년)	44.9 (1991년)	53.9 (1989년)	56.6 (1993년)
5	1.7 (2004년)	-0.2 (2002년)	2.1 (1990년)	6.2 (1996년)	4.0 (2019년)	6.8 (2004년)	-2.2 (1986년)	-3.9 (2007년)	-1.8 (1998년)	44.3 (1982년)	47.6 (2002년)	52.7 (2010년)
:												
하위 5	-3.4 (1973년)	-6.2 (1985년)	-2.8 (1978년)	1.7 (2014년)	-1.2 (1985년)	1.8 (1978년)	-7.6 (1985년)	-10.7 (1984년)	-6.8 (1978년)	7.4 (2011년)	3.5 (1976년)	1.8 (2000년)
하위 4	-3.5 (1985년)	-6.4 (1984년)	-3.0 (1977년)	0.6 (1985년)	-1.6 (1984년)	1.8 (1974년)	-8.0 (2005년)	-11.0 (1985년)	-8.0 (1984년)	7.3 (1983년)	3.4 (1977년)	1.8 (1999년)
하위 3	-3.9 (1980년)	-7.0 (2011년)	-3.6 (1986년)	0.6 (1980년)	-2.5 (1977년)	1.7 (1980년)	-8.0 (1973년)	-11.3 (2011년)	-8.0 (1977년)	2.9 (1998년)	2.8 (1993년)	1.8 (1996년)
하위 2	-4.0 (2005년)	-7.3 (1977년)	-3.6 (1980년)	0.2 (2005년)	-2.6 (1981년)	1.1 (1984년)	-8.1 (2012년)	-11.5 (1977년)	-8.1 (1986년)	2.8 (1995년)	2.2 (2016년)	0.5 (1977년)
최하위	-4.3 (2012년)	-8.0 (1981년)	-3.4 (1984년)	-0.3 (2012년)	-2.8 (2011년)	0.7 (1986년)	-8.1 (1980년)	-12.8 (1981년)	-8.5 (1980년)	1.9 (1987년)	0.3 (2019년)	0.4 (2012년)

2. 특이기상 및 영향

○ 고온 현상

- (2020년 1월~2월)

- 대륙고기압의 발달이 평년보다 약했던 가운데, 우리나라는 **따뜻한 남풍 기류**가 자주 유입되면서 전국 고온현상이 나타나 1973년 이래 **1월은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음.**

* 수도권 1월평균 기온(°C): 1위 1.4(편차 +4.2), * 수도권 1월평균 최고기온(°C): 1위 5.7(편차 +4.1)

* 수도권 1월평균 최저기온(°C): 1위 -2.2(편차 +4.6)

- **2월**은 두 번 한기가 확장하였으나, 1월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음

* 수도권 2월평균 기온(°C): 4위 2.2(편차 +2.3), * 수도권 2월평균 최고기온(°C): 4위 .6.8(편차 +2.2)

* 수도권 2월평균 최저기온(°C): 4위 -1.8(편차 +2.6)

- (2015년 12월)

- 대륙고기압의 발달이 평년보다 약했던 가운데,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어, 1973년 이래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음.**

* 수도권 12월평균 기온(°C): 2위 1.8(편차 +1.7), * 수도권 12월평균 최저기온(°C): 4위 -2.1(편차 +1.8)

○ 저온 현상 및 대설

- (2018년 1월 24~27일)

- 우랄산맥 부근과 베링해 부근에 기압능이 위치하면서 **상층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1973년 이래 **평균기온, 최저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

* 일평균 기온(°C) [1월 극값]: 2위 26일 인천 -14.6 등

- (2017년 1월 19~20일)

-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강원영동지방은 동풍류에 의해 많은 눈이 내렸음

* 일 최심신적설(cm) [1월 극값]: 19일 1위 백령도 11.2

- (2012년 12월)

·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나면서 1973년 이래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은 최저 1위, 최저기온은 최저 3위를 기록하였음.

- * 월평균 기온(°C): 최저1위 2012년 -4.1(편차 -4.5)
- * 월평균 최고기온(°C): 최저1위 2012년 -0.5(편차 -4.8)
- * 월평균 최저기온(°C): 3위 2012년 -7.4(편차 -4.2)

○ 많은 비

- (2016년 12월 21~22일)

·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12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이 많았음

- * 일강수량(mm) [12월 극값 1위]: 21일 인천 34.1
22일 동두천 29.5, 파주 27.4

- (2012년 12월)

· 상순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자주 왔으며, 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대기와 해수온도와의 차이로 인해 눈 구름이 형성되어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왔음. 강수량은 60.4mm(강수량 퍼센타일 98.6)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았으며, 강수일수는 11.2일(평년대비 +4.6일)로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음.

- * 신적설 현상일수: 서울의 경우 신적설 일수는 10일로, 1908년 관측이래 세 번째로 많았음.
- * 12월 일최심신적설 [최고 3위]: 5일 백령도 120 인천 113 수원 105

- (2020년 1월)

· 대륙고기압의 발달이 평년보다 약했던 가운데,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강한 남풍 기류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어 1973년 이후 1월 강수량은 최다 1위, 적설은 최소 1위를 기록하였음

- * 일강수량(mm) [1월 최고 1위]: 7일 동두천 49.1 파주 63.7 백령도 35.1 서울 46.3 인천 42.2 수원 50.8 강화 51.0 양평 57.1 인천 64.0
- * 1월 최심적설[최소 1위]: 인천, 수원 [최소 2위] 서울

○ 건조 및 가뭄

- (2012년 2월)

- 1월 하순 ~ 2월 상순까지 북극의 한기가 남하하여 시베리아 서쪽으로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은 한파와 폭설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며, 수도권 강수량은 0.4mm 로 1973년 이래 최소 1위를 기록하였음.